

# 아기단풍나무

박인숙

안녕하세요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박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제목은 아기단풍나무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에는  
다양한 식물자원과 동물자원들이 2,200여가지가 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목을 아기단풍나무로 정한 이유는  
자연해설할 때 언제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양골 아기단풍나무가  
들려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지구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길양쪽으로 줄지어  
서있는 나무들을 보셨죠, 어떤 나무들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앞에 서있는 나무들입니다.

모두 오른팔을 높이들고 손을 짝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하이파이브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과도 하이파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한번더 하이파이브 해보겠습니다.

힘차게 하이파이브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셨죠

바로 앞에 보이는 나뭇잎과도 하이파이브 해볼까요?

우리의 손이 너무 커서 하이파이브 안되네요, 그러면 누구의 손하고  
하이파이브 할수있을까요? ( ) 네 맞습니다.

바로 아기손하고는 하이파이브 할수있겠죠 그래서 이나무의 이름을  
아기손처럼 잎이 작다고 하여 아기단풍나무라고 부릅니다.

너무 사랑스런 이름이죠

단풍나무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200여종류

우리나라에는 40여종류 이곳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몇종류가 있을까요?  
( ) 네 맞습니다. 13종류의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단풍나무는 잎이 7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9갈래로 갈라져있는  
당단풍, 11갈래로 갈라져있는 섬단풍나무, 우리가 잘 알고있는 고로쇠  
나무도 단풍나무 가족인데요 잎이 다섯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도시에 흔하게 가로수로 심어져있는 중국단풍나무도 있는데

잎이 세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캐나다 국기를 보면 빨간 나뭇잎 하나가 하얀바탕에 그려져있는데 무슨나무일까요? ( ) 네 맞습니다. 바로 설탕단풍나무입니다.

캐나다 설탕단풍나무에는 단맛이 아주 강하여 수액을 추출하여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 빵에 발라먹는데 캐나다 면세점에서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풍나무꽃을 본격 있으세요?

백양골에 따스한 햇빛이 비추는 4월 중순이 되면 아기단풍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마치 건빵속에 들어있는 별사탕 요정같은 작은꽃들이 무더기로 피어납니다.

우 와- 우 와- 우와- 이때 감탄이 나와야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단풍나무 씨앗은 언제 나올까요?

( ) 네 맞습니다. 아기단풍나무꽃이 이주일정도 피고 지고 하는데 바로 그꽃이 진자리에 여리고 여린 단풍나무씨앗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씨앗이 여름동안 내내 이곳 백양골에서 머물어갑니다.

어느날 한과학자가 그단풍나무 씨앗이 바람에 휘날리는것을 보고 와아 나도 단풍나무씨앗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하여 단풍나무씨앗의 프로펠라 원리를 이용하여 헬리콥터 날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연관찰을 잘하면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가도 시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나무들도 부지런히 씨앗을 키우며 열심히 일합니다. 초록세상 백양골은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10월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아기단풍나뭇잎들이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갈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나뭇잎에 단풍이 들까요?

그것은 나무가 추운겨울을 지내기위한 겨울 준비입니다.

여름내내 나뭇잎이 광합성작용을 하여 엽록소 색소인 초록색이 나뭇잎에 나타나 있다가 겨울이 다가오자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위해 떨어져 만들고 광합성 작용을 멈추자

나뭇잎에 본래 있던 노란색소 , 빨간색소, 갈색색소들이 서서히 나타나

게 되는데 이것을 단풍이라 합니다.

그중에서 아기단풍나무는 백양골의 말발굽형태의 독특한 지형과 일교차 기온이 커서 더욱 빨간 단풍으로 물들어 많은 탐방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단풍이 절정기인 80프로 물들때인 11월 초에 백양골에서 단풍축제가 열려 많은 탐방객이 찾아옵니다. 백양골에 갑자기 눈이 내립니다. 12월과 1월, 2월, 3월 백양골의 추운겨울은 깁니다. 그동안 아기단풍나무는 어떤모습으로 지낼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곳곳하게 잘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마치 빨간 아기사슴발같은 겨울눈에 지난날의 아름다운추억과 앞으로의 새로운 꿈을 꼬옥 담아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양골에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빨간 겨울눈에서 샛파란 연두빛 새순과 꽃봉우리가 펼쳐놓습니다. 짹 짹 여기에서 박수가 나옵니다. 위대한 아기단풍나무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양골 아기단풍나무가 들려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아기단풍나무와 가까운친구가 된것같습니까?

그렇다면 함께한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사진들은 아기단풍나무 해설을 듣고 아기단풍나무와 친구가 된 탐방객 사진들입니다.

이것으로 아기단풍나무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